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화합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을 이루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정들의 분이 다투게 해주십시오. 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2호 2012년 5월 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전통적 가족체제 부활' 로 사회발전 이룬다!

월드, "가족이 먼저" ...릭 샌토럼 후보 대선경쟁 자진사퇴 보도

엄마, 아빠, 우리 집 그리고 가족... 모든 사람이 말문이 트이고 나서 그 생을 다할 때까지 가슴에 안고 사는 말들이다. 미국사회 역시 5%도 안 되는 지지율로 미국 공화당 경선을 시작해 예비선거에서 롬니의 라이벌로 떠오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후보의 자진 사퇴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 음미하고 있다.

그는 가족을 화두로 보수주의적 국가경영 비전을 담은 책-"It Takes a Family"(가족이 필요해, 시대정신 출간)를 출간해,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정도로 자신의 실제 가족사를 정치철학으로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2012년 대통령선거는 릭 샌토럼을 알리는 화려한 데뷔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월드(World)지는 구체적으로 샌토럼 후보의 국가 경영 철학인 "가족이 우선이다"는 가치를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Family first: With his daughter in and out of the hospital and a tough primary approaching, Rick Santorum ends his presidential bid).



가족을 위해 대선을 포기한 샌토럼 후보와 그의 가족들

공화당 경선 레이스 개막전인 아이오와 코커스 1위를 시작으로 미트 롬니 후보와 선두 다툼을 벌이며 2강을 형성했던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경선 포기가 오로지 막내딸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명의 자녀 중 막내인 이사벨라는 2008년 태어날 때부터 '3염색체성 18'(trisomy 18-2개라야 정상인 18번 염색체가 3개인 관계로 발생하는 선천적 유전병)이란 유전병을 앓았다. 흔히 '에드워드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정신지체, 발육 지연 등을 유발하며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아 1년 안에 약 90%의 유아가 사망한다. 그런데 이사벨라는 현재 네 살이다. 샌토럼은 딸의 생존을 '기적'이라며 감격해왔다. 그는 1996년 10월 넷째 자녀였던 아들을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잃은 아픔을 겪었다.

이사벨라는 올 들어 2번 입원하는 등 최근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샌토럼은 이달 초 딸이 폐렴으로 입원하자 선거유세를 잠시 중단했다. 당시 롬니 후보도 "딸을 위해 유세를 중단한 샌토럼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비방 광고를 취소했다. 샌토럼은 1월 유세 도중 찰스턴의 한 교회에서 청중에게 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 딸은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전격적으로 경선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기에는 가족이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라는 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필요해"에서 그는 바로 미국 서민을 위한 보수주

의 증거로서 "가족"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샌토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진보 언론, 할리우드, 교육계 엘리트들은 진보세력을 보통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계몽적인 경제정책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을 돕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반면 보수 세력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데다 개인주의자들이며, 기득권세력이나 그들의 골프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샌토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매우 소중한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업을 이어받을 때처럼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후속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더 기여하고 보태는 것이 보수주의라는 것이다.

이어 "문명은 가족에서 비롯된다. 문명의 모든 기초 단위의 가족이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가족의 기쁨과 사랑을 토대로 가족이 공동체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샌토럼 의원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하늘로 떠나보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더 지킨 사연, 현재 유전자 변형질환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며 사는 자신의 가족사 등을 소개한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한국 CBS 기독교방송 뉴스 콘텐츠 교류양해각서 체결



본지 발행인 장영춘목사(왼쪽)와 이재천 CBS사장

한국 교계뉴스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보도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과 한국 CBS기독교방송(Christianity Broadcasting System Maker, 사장 이재천)이 뉴스 콘텐츠 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본지는 CBS '크리스천 노트 뉴스'에 미주 교계 소식을 제공하고, 또 본지는 한국교계 소식란에 실시간 CBS가 제공하는 '크리스천 노트 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지난 17일부터 한국 서울 금남로교회에서 열린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기간 중 금남로교회를 방문한 이재천 사장과 만남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으며, 20일 CBS를 방문 교류양해각서에서 서명했다. 또한 양 사는 다양한 사업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 목사는 "이번 교류 체결로 본지는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한국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양 사가 협조함으로 더 큰 일을 해내자"고 말했다.

1954년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개국한 기독교방송인 CBS는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중단됐다가 1987년 재개 정상화 됐다. 현재 TV(스카이라이프, 케이블, IP)와 라디오 방송(표준 FM/AM, 음악FM) 및 인터넷 노컷뉴스, 종합일간지 노컷뉴스, 모바일 등을 방영 발행하고 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월요일의 신앙"...일상에서 믿음을 보여라!



3면

그리스도인들, 페이스북 사용해야 할까?



7면

복음이 동성애자를 구원한다(중) 정호영(은혜한인교회 문서선교 전도사)



16면

5월은 가정의 달... 교회 모든 프로그램 문화적 코드 주제로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부 여름 특별집중 강의 안내

현재 El Monte에 위치한 ITS는 (전) 나성한인교회 (교) 김익환 목사의 강력한 선교 비전에 따라 지난 30여 년 동안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제3세계 출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ITS 한국어부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집중강의를 개설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ITS 재학생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사역자, 일반인(평신도)에게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과목당 수강(청강)비는 100불입니다. 입학울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수강비 전액을 내시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특히 Fuller 신학교)와 교환학점도 가능합니다.

1. <요한계시록> 이필찬

일시: 6월 11일(월)-16일(토) 오전 9시-오후4시 (토-오전: 재학생 시험)
장소: 나성남포교회 401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90248 (310-327-8778)

2. <핵심 주제로 보는 레위기> 성기문

일시: 6월 18일(월)-23(토) 오전 9시-오후4시 (토-오전: 재학생 시험)
장소: 나성남포교회

3. <복음서 신학> 이국진

일시: 8월 27일(월)-9월 1일(토) 오전 9시-오후4시 (토-오전: 시험)
장소: El Monte Campus (3225 Tyler Ave., El Monte, CA 91731)

- 한 과목당 총 30시간, 각 과목 10개의 주강의로 구성됩니다.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생의 경우, 각 학위과정에 따른 수강료는 각 과목당 D.Min 1250불, M.Div 800불 + 수강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 강의를 들기 원하시는 목회자, 사역자, 일반인(평신도)의 경우, 각 과목당 100불입니다.
- 점수는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숙소를 각자 알아보셔야 합니다.

강사 소개



이필찬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과 (BA)
- 감동신학 대학원 석사학위(M.Div)
- 미국 그랜드 레피드, 칼빈 신학교(Th.M)
- 영국 스코틀랜드 University of St. Andrews (Ph.D), Richard Bauckham의 지도 하에 '요한계시록의 새약물'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독일 튀빙겐의 WUNT 시리즈, (The New Jerusalem in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Light of the Early Jewish Literature) 라는 제목으로 출간.

저서
-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99년 이후 7번 상서 유니온 건)
- (4가 속회 오라리) (2006년 이후 7번 인쇄본)
- (복음주의 주해와 설교 시리즈) (영국) (이 상권을 허물라) (1-4장): (영국) (복음주의 주해와 설교) (5-12장) (이 상권을 허물라) (5-12장)
- (복음주의 주해와 설교)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영 크리스트)
- (복음주의 주해와 설교) (이제서야)
- (복음주의 주해와 설교) (이제서야)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석사학위(주임 교수) 역임
현재: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 분당 지구교회 협동 목사



성기문 목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문학사)
-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목회학사)
- 아세아연합신학대 대학원(신학석사, 규장각전공)
- 영국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철학박사과정 수료)
- 한국 웨스트민스터, 백석대학교, 성광대학교 등 구약강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행정경영교수 역임
-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행정과장 강의교수(현)

저서
-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 (2003년, 좋은벗)
- (영유물주권사: 이사야, 2) (공저, 두란노아카데미, 2008)
- (오세의 고백성) (2009년, 솔로몬)
- (예루살렘의 주해와 설교) (근간)

역서(최근주요)
- 고든 맥닐, (심판을 넘어서 회복의 약속으로) (그리심, 2008)
- 리처드 미들턴, (해방의 향성) (SFC, 2010)
- 크레이그 에버슨, (만물어진 예수) (세움출판사, 2011)



이국진 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졸업
- 고든-콘웰 신학교 졸업 (Th.M.)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해석학 박사과정 수료
- 노스웨스트 대학교 졸업 (Ph.D.) 복음서 전공.
- 현재 예수님의 비유 해석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 (아기제 성경) 편찬 책임자 역임
현재: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필라델피아 연극연극 강사
제네바 대학교 강사
고든-콘웰 신학교 겸임교수(인준)

저서:
- (예수는 있다) (국제 제자 훈련원, 2011),
- (사랑) (아기제, 2011)

연락처 & 수강신청

- 김재영 목사 (562)665-5057, email: jykim328@yahoo.co.kr
- 임성건 목사 (213)446-5094,
- 김준수 목사 (213)407-5010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Korean Program Director 김재영 목사 | 3225 N. Tyler Ave., El Monte, CA 91731 | www.itsla.edu



시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양춘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때로 우리는 예배시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앞뒤와 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의 시작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의 연속인 것이다.

헬라의 거지 철학자로 유명한 디오게네스는 아무하고나 거리낌 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극장이나 경기장을 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경기장으로 가는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지금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까?”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경기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으며 재차 물었다.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누구와 경기를 하십니까?” “바로 나의 기쁨 그리고 고통과 경기를 하지요. 수시로 덤벼드는 욕망과 한 바탕 붙어 레슬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녀석을 붙잡아 땅으로 팽개쳐 버릴 때의 그 상쾌함이란!”

디오데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어 보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딤후6:11-12).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 교만, 변론, 투기와 분쟁, 훼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이다. 갈수록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피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피하고, 쫓아가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삶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면서도 때로 그 반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피해야 할 욕망과 분쟁은 적극적으로 쫓아가고, 쫓아야 할 경건과 인내는 오히려 피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솔직한 만남이다. 내 마음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작업이다.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소욕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거나 자신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일이다. 이 작업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려는 나 자신을 대항하여 싸움을 치러야 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큰 전쟁보다는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나 자신과의 작은 싸움들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의 결정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거스름돈을 세어보고 더 많이 돌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또는 남의 차 옆을 굽는 사고를 저질렀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파악한 순간, 우리는 내면에서 나 자신과의 순간적인 싸움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며 나누는 인사는 우리가 받은 특별한 축복을 상기 시켜준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엄청난 축복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지시켜주는 인사이다. 오늘 내가 당장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일요일의 신앙” ...일상에서 믿음을 보여라!

리더십저널, 베르너 박사의 일상 속 예배-10가지 실제적 제안 소개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의 신앙”이라는 모토로 일상 속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의 실제적인 제안자 롤란트 베르너 박사(Dr. Roland Werner)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1)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기
성경을 지니고 다니면 필요할 때 찾아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다. 외출 시 휴대하기 가장 좋은 성경은 고무 밴드가 있는 작은 기드온 성경이다. 이 성경은 살 수 없고 기드온 단체로 부터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기드온 단체에서는 호텔 방에 성경을 비치하고 있다).

2) 이웃과 동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실천함으로써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은 작은 일들일 때가 많다. 내가 어제 등 운동 치료실의 탈의실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그곳에 있던 만나체의 남자들에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Guten Abent-좋은 저녁입니다)라고 인사했다. 내 옆에 있던 노신사는 놀라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



해 이야기하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일상 속에서 당신의 믿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들에 관해 주말에 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때이다. 신앙 일정이 있을 때 안 된다고 이야

하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과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

6) 소외된 자 돌보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룹의 역동적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호감이 가고 더 인기가 있으며 더 존중된다. 이들은 존경받은 인물 목록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소 까다롭고 그들은 목록 아래에 위치한다.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돌보실까? 이 질문은 직장동료나 교회의 사람들 혹은 모든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7)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이 눈에 띈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초대해 받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셨거나 다른 사람들 집에서 식사하기를 청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뒤따라 모든 식사를 교제의 이벤트로 만드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장으로 만드라.

8)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자신

성경은 항상 읽고 갖고 다니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며 복을 받고 소외된 자 돌보라

했다. “마침내 인사하는 사람이 생겼네 그려.”

사람들이 연립주택에서 다양한 세입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부서의 동료들에 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항상 인사를 하는 사람과 결코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하셨을까?

3)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기

롤란트 베르너 박사는 인터뷰에서 함께 수없이 많이 땀을 흘렸지만 서로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던 의사와 간호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한 기독교 집회에서 만나 비로소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됐다. 당신도 그렇다고요?

만약 당신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축복을 기뻐한다.

4)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에 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서지는 즉시 일상 속에서는 서로 기독교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매번 놀라게 된다.

만약 우리가 불편하거나 너무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과도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비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증인이 되고 싶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들을 서로주고 받으며 영적인 도전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5) 공개적으로 기독교적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반복적으로 내게 직장에서는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렇지만 정직함과 기독교적 이웃사랑 외에도 누구나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일정을 정할 때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

기하고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거나 친구들과 서로 기도하기 위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안돼 라고 말하라(구역모임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눈을 치켜뜨겠지만-이런 이야기들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처음에 가장 이 일에 마찰이 있던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기억한다. “우리 부서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지.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뒷

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야 할 지 알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회를 위해 간구하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기도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영적 도움을 주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던 많은 예들을 알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신앙칼럼

과거로부터의 자유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한국이 총선을 치르느라고 온 나라가 어수선했던 주간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서 또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핵무기 실험도 할 것처럼 세계를 향한 벼랑 끝 전술로 큰 소리를 치는 북한이지만 지난 주간의 로켓 발사는 실패했다. 로켓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물체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구의 중력이 있다. 로켓은

그 중력을 벗어나 무중력의 지구궤도까지 우주선을 운반해주는 것이다. 현대 우주과학은 벌써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우주선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무려 10억 달러 상당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올라가는 커녕 발사 몇 분 후에 산산조각이 되어 저 근산 알바다

에 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데 실패한 것이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과거의 중력을 벗어나는 영적인 로켓이 있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우주선을 지구궤도에 올려주는 로켓처럼 과거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신앙의 정상에 올려주는 영적인 로켓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우주선이 발사시간이 되면 굉장한 추진력으로 지구를 박차고 출발하듯이 사람이 과거를 벗어나 당당하게 희망찬 미래로 박차고 출발하는 때가 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회개하는 순간이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뵈 부르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사랑은 현재에 속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내 모든

과거를 다 맡겨버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과거에 얽매인 전과자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사도바울!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요 믿는 다른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다면 바울은 그 많은 죄책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죄와 실패, 실수로 얼룩진 과거, 그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해가 더 고마울 뿐이었다. 핍박자들 중에도 괴수였던 자기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변화시켜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 했다(딤후1:12-14). 성도란 지난 날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주시고 믿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자기 직분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난날을 처리하지 못해 믿지 않던 때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링컨이 미국 노예해방을 시켰을 때 흑인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해방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면서 풀어놓아 주었다. 그 때 노예들이 얼마나 좋았겠냐?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많은 흑인들이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옛날처럼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항상 주인을 의지하고 매여 사는 노예생활이 훨씬 편하고 스스로 책임 있게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능력도 자신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옛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전부 용서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과거의 중력에서 해방되어 당당한 자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과거의 노예로 매여 살지 않는다. 몇 번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신 인생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과거 허물과 죄에 대한 기억들이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미래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께서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확신시켜주시기를 기도한다.

푸/ 른/ 초/ 장

백남철 목사

(인창제일교회)



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모두 그것입니다. 팔복이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반복해서 전하는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권세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권세에 맞서 살고 있습니다. 육의 권세에 종속되어 살고 있기에 주님이 주는 권세의 맛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벗어나야 하는데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하

를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요 11:40).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한결 같은 증언입니다. 그 역사를 맛을 보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맛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를 부인해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자기를 비워보세요. 자기를 심령을 가난하게 해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세요. 전존재를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 순간 얼마나 평안한지 그 고요함, 평안함 그 행복함은 세상에서 전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경지를 기도 가운데 느껴 보세요. 참으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보세요. 그 행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보세요. 은혜를 느껴 보세요.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그 맛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상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복과 권세를 체험하는 그 맛을 알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12-14

1. 주님이 주시려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를 '생령(living being, 리네페쉬, hY:'j' vp.n(I)')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령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로 낙원, 천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이 복이 최초의 인간이 가진 권세입니다.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권세, 영생을 살 수 있는 권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권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복과 권세는 같은 것입니다. 이때 생령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습니다. 왜 상실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고 수고와 오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실낙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복을 받는 비결을 말

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2-14).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은 푸누마 조오폴로운(pneu'ma zw/opoioi'n)이라 했습니다.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육을 가지시고 있는 생전에도 주님은 죄가 없는 생령의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다시 낙원, 하나님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4-45). 예수님은 '신령한 몸(spiritual body)'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상태를 '살려주는 영(life-giving spirit)'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회랍원문의 뜻이 묘합니다. 생령은 푸쉬켄 조산(vp.n; y,uch:n zw'san)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다스리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꿇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사는 복, 권세를 얻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권세, 복을 얻습니다. 완전한 복이요 권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얻게 되는 권세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가 없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얻는 복이요 권세입니다. 생전에 주님처럼 생령의 존재로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죽으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영원히 왕 노릇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

늘이 주는 권세를 맛을 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압니다. 육의 맛을 보면 육의 맛을 압니다. 그 맛이 좋다고 여겨지면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영의 맛을 보면 영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맛에 중독이 됩니다. 더 좋은 맛을 보면 그 맛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복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 3대회장 이 취임식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에스더 여왕처럼 우아한 여성목사회에서는 여러 목사님들과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제 3대회장 이 취임식 행사를 갖고 저 하오니 부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백지영 목사

일 시: 2012년 5월 20일(주일)5시
장 소: S.L. 임마누엘선교교회
3921 Wilshire Blvd., #400-408, Los Angeles, CA 90010
문의전화: (213)381-7755 / Cell.(323)708-9191

설교: 김기연 장로
한국대전영광교회/ 영광기도원 원장 / 여장동합장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 회원일동 드림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s Ministers Association

3921 Wilshire Blvd., #400-408, Los Angeles, CA 90010
Tel.(213)381-7755, (323)708-9191, Fax.(213)487-7373

교육칼럼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지난 주간은 서울 금관교회에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매우 감동적이고 은혜가 풍성한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강사님들의 진솔한 고백과 목회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실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거듭나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강사님들의 강의내용이 목회현장의 현안 문제인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회에 국한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시대의 주역인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7절-10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와 종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십 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브리암 산지 가아산 북 뫼답스 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가나안 이민 1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

머 먹어 배고파 주린 배를 물로 채우고 긴긴 밤을 지새워야 했던 날들. 해마다 보리고개를 지나온 우리 민족에게 오늘날처럼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찬송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찬송과 기도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찬송하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누가 먼저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갈라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외에 문화적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양육과 교제는 영적인 언어 즉 하나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신앙으로 소통한다는 것

역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보다 다음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지금처럼 교회들이 다음세대에 대하여 관심도 대책도 전략도 세우지 않는다면 말지 않아 우리 다음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여 제발 아이들을 Spoil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생하여 이룬 부와 풍요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풍요가 자식을 망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려거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러면 아주 빨리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없고 나날 줄 모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팽배해져 가는 오늘날의 세상 사조를 따라 함께 타락의 길로 전락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2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곧 나의 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는 선택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이고 잘 이해가 안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줄 수 있는지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유기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과 지성으로는 다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Reprobation) 즉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질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빛을 비칩니다. 얼음은 태양이 비춰면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태양이 비추어지면 더 굳어집니다. 사람도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들었는데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오히려 강박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증거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강박해 지면 택할 만한 증거입니다. 18절의 바로가 그 예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고 강박해집니다. 강박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도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은 죄나 상황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자 한 강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

구원 얻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어

나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더 박약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선택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14절에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만한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불평도 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등의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나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몇 가지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그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느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에 안드는 구두를 사지 않았다고 다른 구두들이 불평할 수 있는나는 것입니까. 또 풍수가 나서 수십 명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그 가운데 3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조대원에게 왜 다 구원해주지 우리 몇 사람만 구원해주었다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었는데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할 수 없습니다.

세속언어 배우기 전 영적 언어인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감사 없는 극단적 개인주의는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

쟁을 해야 했으며 또한 살아남기 위해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이민 1세대의 수고로 나라를 세우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없었습니다. 부모세대가 생명을 걸고 이루어 놓은 풍요를 자녀들로 누리게 하는데 만족하였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와 부모세대들이 죽고 난 후 다음세대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후로 이스라엘은 불행한 사사시대를 살았으며 파란만장한 왕조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민족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신앙 때문이요 기도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와 6.25동란을 겪고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난과 싸워온 날들, 못

다음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불행이 닥쳐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우리가 겪어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세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로 그들의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아주 절실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세대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가 목회자와 평신도만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세미나도 함께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섹션을 목회자와 평신도 두개의 섹션에서 하나의 섹션을 더해 차세대까지 세개의 섹션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언어도 이미 사춘기를 접한 청소년들과는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듯이 영적 언어의 소통도 장성한 청소년들과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세대들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문화를 접하기 전에 어릴 적부터 기독교문화를 접하고 세속언어를 배우기 전에 영적언어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잠언22장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문화와 영적인 양육 즉 기독교교육은 반드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주의 도를 떠나 제 길로 가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비록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지 몰라도 문화적 언어인 그리스도문화와 영적 언어인 하나님 말씀은 서로 소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나라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문화 속에 오셔서 동화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부모세대가 다음세대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목회자나 부모가 권위를 버리고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소통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세대를 넘어 함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중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현대신학동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중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강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졸업식안내

일시: 2012년 5월 19일(토) 오전 9시
장소: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생을 위한 총장 만찬

일시: 2012년 5월 18일(금) 12:00-1:30pm
장소: Westminster Hall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석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5.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학장)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다크파(DAKPA)



북쪽으로는 중국과 남쪽으로는 인도와 접하고 있는 부탄은 매우 아름답고 전략적 요충지인 작은 나라이다. 이 나라의 풍경은 매우 다

양하여 평평한 고원에서부터 모래 평원이 있는 가하면 험준하고 습기 많은 숲도 있고 바위산 히말라야 등 여러 가지이다. 부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천동용의 땅이라는 의미로 'Druk-ya' 이라 부른다. 부탄 사회는 4개의 주요 그룹이 있다. 즉 티벳(부탄인을 포함한)의 보티아, 동부 보티아 또는 사츄, 네 팔인,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다양한 다른 부족 그룹들이 그것이다. 보티아(부탄인)는 가장 큰 그룹이고 부탄의 중앙부와 서쪽에 모여 살고 있다. 사회, 정치 계의 리더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

서 나온다. 약 65,500의 다크파(사그렘과 또는 브로크파로도 알려져 있다)는 많은 소수 부족들 중의 하나이다. 이 종족은 네팔의 립부족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주로 이 나라의 동쪽 사그렘 계곡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미라 사그렘과 (또는 브로크파)로 불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다크파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주요 작물은 옥수수를 포함해 보리, 사탕무 등이다. 그들은 가족의 충분한 식량을 위해 오랜 시간들에서 일한다. 다른 주요한 활동으로는 티벳 물소인 야크와 양을 기르거나 방적업을 하고 울을 짠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몇 마리의 돼지나 닭을 기른다. 야크는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사용되며 고기나

우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탄 땅의 약 3%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고 농작방법은 조금씩 변화해왔고 노동의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들이 담당한다.

여성들은 긴 머리에 전통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그들은 대체로 붉고 하얀 실크 폰초 외투와 동물 모양으로 장식된 붉은 실크 자켓, 붉은 울 망토를 입는다. 또한 꼬아 만든 검은 울 자켓을 입기도 한다. 남자는 가죽 또는 천으로 된 하얗고 큰 울 바지와 붉은 울 자켓을 입거나 때때로 가죽과 벨트로 된 소매 없는 긴 외투를 입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 터키식 귀걸이를 하며 가장 큰 구별 점은 독특한 느낌의 모자이다. 그 모자는 평평한 원반 모양이며 야크의 털로 만들어져 있다. 모자는 각각 분수 같은 다섯 꼬리를 가지고 있다.

다크파 사이의 사회적 신분은 가

족의 경제적 위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부 힌두 네팔인들을 제외하고 카스트 제도는 없다. 황실과 소수의 귀족 계층은 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다. 보통 개인들은 두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내들은 처녀 때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와 관계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신앙
다크파는 거의 100% 불교이다. 그들은 티벳 불교의 "붉은 모자" 종파를 따른다. 또한 전통 티벳족의 "사머니즘"도 일부에 의해 믿고 있다. 그 사머니스트들은 불 수염을 하느님, 야마, 조상신들을 믿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은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사만(사제, 여사제)을 의지한다. 대부분의 불교 가족들은 그들의

집 옆에 사당을 모셔둔다. 가난한 가정은 사당보다는 작은 불상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은 사당과 같이 정교한 제단과 램프, 향료 등 기타 종교적인 기구들을 빠짐없이 갖춘 방을 사용하곤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주위 국가들과의 고립된 역사로 인해 부탄의 사람들은 이방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히 보수적 성향을 띠며 조상의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한다. 그러나 이즈음 그들은 현대 의학과 문명의 편리함에 대한 필요 때문에 더욱 쉽게 변화하고 있다. 다크파는 북음에 고립되었고 저항적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신앙은 영혼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자와 선교 헌신자들이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한주민 100명 중 8명 "성경 봤다"

북한 내에 성경과 같은 종교적 물품의 유입이 지난 10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대표 윤여상)가 최근 탈북자 6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11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2011년 탈북자 396명 중 31명(8.0%)이 성경을 본 경험이 있었다. 이는 2001년 4명(2.1%)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성경을 본 탈북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4.0%, 2009년 5.0%, 2010년 6.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내·외 선교 단체들이 최근 비밀리에 북한내 성경 반입량을 늘리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접 종교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9명(5.0%)이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접 종교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69명(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1년 탈북자 대상 조사에서는 35명(9.7%)만이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700명 중 5682명(99.7%)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 내 종교 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 465건(57.0%), 이동의 제한 116건(14.2%), 사망 67건(8.2%), 실종 46건(5.6%), 추방 및 강제이송 26건(3.2%), 상해 2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 종교박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함경도다. 함경도는 전체 816건의 종교박해 사건 중 477건(58.4%)을 차지했다. 지역 특성상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고 이따금 탈북자들의 발생으로 종교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진 성경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654명 중 '기독교를 믿는다'가 2807명(4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주교 549명(9.7%), 불교 465명(8.2%)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2명(32.2%)이었다. 지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시점을 조사

해본 결과, 중국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1442명(35.8%), 하나원 1210명(30.0%), 대성공사 1175명(29.1%), 북한 86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윤여상 대표는 "아직도 북한에서의 종교생활은 극히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종교박해와 관련된 탈북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기독교와 연관된 것이라 한국교회에는 북한 내 종교박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비판 만화 그려 3년 징역형

이집트의 17세의 청소년 네티즌인 가말 아브두가 지난 4월 4일 이슬람을 모독한 혐의로 법정에서 세워졌다. 이슬람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페이스북에 올리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돌려보게 한 혐의이다. 아퍼나일주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그가 그린 만화는 지난 해 12월에 제작되었다는데, 이 만화가 세상에 드러나자 그가 사는 마을과 주변 주민들이 거센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만화에 분노한 이슬람 신자들의 시위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가족이 불타고 기독교인 몇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가 살고 아쉬우트시의 아동법원은 가말 아브두우 마수드에 대한 재판을 통해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글과 출판물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의 변호를 맡은 인권변호사인 네가드 알 보라이는 이번에 선고된 형은 그와 같은 어린 소년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할 경우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서 사람고기만두 판매

최소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이 인육으로 만두를 빚어 판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사람고기만두를 팔았

다고 진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3일 경찰의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3명은 살인을 인정하고 인육을 일부 먹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일부로는 만두를 빚어 이웃 주민들에 팔았다고 밝혔다.



으로 조사됐다.

북한 자유주간 5월 1일 종료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을 공언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동포 생명, 자유, 인권을 위한 국민대회'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 자유 주간' 9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날 대회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가 주관하고 탈북자복송지원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한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 요청한다"며 중국이 탈북자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생명의 촛불은 전국으로, 전세계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의 촛불과 금식과 기도가 이 땅을 가득 채울 때 중국의 강제 복송이 멈춰지고 탈북민은 유엔법상의 난민으로 인정되며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대표는 단상에 올라 "북한은 하루빨리 개혁과 개방을 하라"고 촉구한 뒤 "자유 북한"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책 랜들러 국제엠네스티 북한전담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려줬다. 그는 "북한 정권의 고문, 학살 등 만행을 기록해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우선"이라면서 "각국의 인권 집회를 조사해 보고하는 UN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민 이예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지를 위한 1000일 릴레이 단식 계획을 발표하고 "탈북자들이 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나라, 남한을 잘 지켜 내는 것이 북한 동포에 대한 남한 국민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복송을 중단할 때까지 매주 1기를 금식하고 매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북한 자유 주간' 행사는 5월 1일까지 서울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 등에서 이어졌다.

한국 천주교 신자 꾸준히 증가

한국 천주교 신자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201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천주교 신자 수는 5백 30만 9천 964명으로, 지난 해 보다 2.0% 증가해 전체 인구의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422만 8천 여 명이던 천주교 신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3%씩 증가하면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9년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가장 높은 신자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 구간은 80세 이상으로 인구 대비 18.6%로 나타났다.

또 성직자는 추기경 1명을 포함해 주교 34명, 신부 4천 455명 등 모두 총 4천 655명으로 신부 1인당 신자 수는 전 149명이다. 그러나 지난 해 영세자는 전년 대비 4.3%인 6천 82명이 줄어들어 13만 4천 562명인 것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 희망이 동성애자를 구원한다 (하)



정호영 (은혜한교회 문서선교 전도사)

독자기고

넷째, 행동 서약(A Commitment to Action)

치유 받기를 원하는 동성애자의 확실한 행동이 성패를 좌우한다. 두렵거나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피동적인 행동은 금물이다. 누가 쉽게 치유해줄지 바라는 태도로 임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성애 수술은 외과보다 내과에 속하는 정신병이다. 그것도 양의학보다 근원을 캐는 동양의 학에 더 가깝다고 본다. 병인은 본인인 것 더 잘 안다. 동성애는 일종의 변태적인 정신병이라 하지 않았는가? 데이빗 앳킨슨(David Atkinson) 유희화학자는 “동성애는 왜곡(distortion)과 변태(abnormality)”라고 하였다.

동성애 치유는 베드로후서 1장 4-7, 11절을 몇 번이라도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빠른 비결이라 믿는다.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4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5절),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6절)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7절).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11절).

다섯째, 급진적 열정(A Different Passion)

동성애 극복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나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정이 지속된다면 물론 가능하다. 디모데후서 2장 3-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한다(3절).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령관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4절)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함께 동행 하도록 매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구속에서 자유해방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3. 동성애자를 치유하는 복음을 묵숨처럼 믿고 기도하라

동성애에서 급진적 변화를 소망하고 성병치유 욕구에 강한 자들은 예수님의 급진적 복음을 믿기만 하면 치유된다. 게리 폴린스는 “그런 분들의 변화는 쉽게 가능했다. 동성애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변하여 이성애자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많다. 성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성행위의 조절이 가능했다. 동성애 경향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은 선택에 따라 성적으로 적극적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고 했다.

데이빗 마이어스(David G. Myers)와 맬콤 지이비스(Malcolm A. Jeeves)에 의하면 “성경적 경향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형성되거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윤리적 선택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게리 폴린스는 “전문서적에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이성의 배우자들과 결혼해 성생활을 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죄인과 죄에 유혹당하는 자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감싸줘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한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향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동성애자가 진지하게 변화하고자 할 경우 상담자는 가능성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모버리(Elizabeth R. Moberly)는 동성애 치유를 위한 새 기독교윤리(A New Christian Ethic)를 개발했다. 엘리자베스는 동성애는 이성애로 가는 정상 통로를 바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통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동성애 문제는 동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더 잘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성적 행위 없이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게이 동성애는 남성이 잘 도울 수 있고, 레즈비언 동성애는 여성이 잘 도울 수 있다고 한다. 크리스천들이 어떤 문제이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빈민(homeless)을 네 집에 들이며”(사 58:7),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사 68:6)라고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크리스천들이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정신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의 기도는 치유의 심장에 있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으로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4. 동성애자가 회복요법을 받으려면 복음교회를 찾아라.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은 기뻐서 복음을 폭발시킬 것이다. 그 어려운 동성애의 끈을 끊고 치유를 받아 정상인으로 돌아온 경험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동성애 전문의학자 그레그 엘버스(Gregg R. Albers)는 “동성애 출신 크리스천들이 동성애자들의 영성과 AIDS 등의 성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가장 직접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나 라일리(Mona Riley)와 브래드 사젠트(Brad Sargent)는 교회들 중에 조금이라도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교회 여섯 개의 초점만을 소개한다.

1)허용적인 교회(The Permissive Church)

이 교회는 남녀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력한 소망의 메

시지가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다. 예수를 순종하지 않지만 그는 막대한 희생을 한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2)반역적인 교회(The Rebellious Church)

이 교회의 회중은 공개적인 게이 멤버들이다. 그들은 공공장소나 서비스 상가에서 시위를 많이 한다. 정치적 활동을 하며 교회에서 계획된 어젠다를 처리 대회 장소로 사용한다. 성경 구절 중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사용하고 불편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교회를 이용하는 모임이다.

3)판결하는 교회(The Judgmental Church)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 희망도 없고 궁지에 빠져 있을 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다.

4.)무책임한 교회(The Uncommitted Church)

이 교회는 게이도 레즈비언도 그들의 범죄에 대한 메시지가나 교육도 책임지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도 연민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참신한 권고와 방향을 리더들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5)무지한 교회(The Ignorant Church)

이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교회이다. 회중은 동성애에 관련된 자들은 잘 못이라고 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도울지도 모른다. 이런 교회는 천국으로부터 빛나간 교회라고 평을 받는다.

6)치유하는 교회(The Healing Church)

치유하는 교회는 성도가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믿는 복음교회이다. 동성애 행위는 죄임을 알고 있는 교회이다. 동성애나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를 고백을 하는 교회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해서 완전히 용서되고 치유되는 것을 믿는다.

교인들은 선포한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헌금을 한다. 교회 리더들의 결정에 따라 그 헌금 중에 동성애 전도에도 사역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13면으로 계속)

죄수에서 감옥의 전도자로 프리즌미스트리 대표 척 콜슨 목사 소천



지난 21일 오후, 감옥선교회(Prison Fellowship Ministry) 척 콜슨 목사가 향년 80세로 소천했다. 제리 팔웰 목사 등 기독교 우익 진영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소천 이후, 제임스 님스 목사와 함께 지금은 복음주의계 리더로, 교회공동체의 개혁만이 미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한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손도끼 날' '악랄한 천재'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명 높은 시절도 있었다.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그는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된 후 한 친구에게 전해 받은 C.S. 루이스의 '단순 기독교' 책을 통해 극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후 기독교인이 된 지 2년 만인 1975년 '거듭남(Born Again)'이란 책을 써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1978년 이 책을 바탕으로 그의 드라마틱한 삶이 동일한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후 콜슨 대표는 비영리단체인 감옥선교회를 세우고 재활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죄수들을 돕고 그들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왔다. 지난 30년 이상 한 번도 뻣뻣지 않고 부활절 주일을 죄수들과 함께 보내왔던 그이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병원에서 부활절을 보내야 했다. 콜슨 대표는 지난달 30일 버지니아 주 렌즈돈에서 열린 '침묵의 나선을 깨뜨리자' 컨퍼런스에서 강연 도중 내출혈로 쓰러졌으며, 바로 다음날 수술을 했지만 조금 호전되는 듯 하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급속히 악화돼 결국 소천했다. 그는 2008년 복음주의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회심과 감옥선교회를 만들게 된 동기 그리고 교회 개혁과 갱신만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천명했다.

척 콜슨 목사는 수감 중에 소명을 발견했다. “크리스천으로서 지난 35년을 돌이켜볼 때 최악의 날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보좌하던 좋은 대화가 그때를 바꾸지 않았어요. 권력은 무상하고 덧없어요.”

척 콜슨은 악명 높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하수인이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으며 중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다. 그가 이 교훈을 배운 것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였다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공공의 적 제1호가 되어 수감됐죠. 그것은 좋은 경험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삶을 꼭대기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옥중에서는 삶의 내면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그는 감옥에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40년 동안 복음에 빛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척에서 시키신 일 은 교도소선교회 사역이었다. 그는 113개국에서 사역하며 교도소혁신과 재소자 재활훈련에 헌신하게 된다. 그가 수감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시작됐다. 또한 그는 십여 권의 책도 썼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교회공동체의 각성을 호소한다.

콜슨 목사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과 교회공동체의 건전한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명령 때문이다. 즉 그는 “문화는 ‘종교가 육신으로 드러난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구 문화를 위태롭게 한 것은 기독교교회였지만 교회가 병들어 문화가 병들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낙태, 잘못된 법원 판결, 가족와해, 사회부패 등등이 교회가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근까지도 강설을 촉구한다.

그는 문화가 병든 미국사회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해준다:

“제가 32년 전에 출소했을 때 재소자가 22만9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2천3백만 명이 있습니다. 가족와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사회의 도덕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을 일으킨 자유주의자를 탓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면 문화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80세인 척 콜슨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40년 전 그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감옥선교회는 현재 미국 50개주에 1,300여 시설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7,700개 교회와 협력 14,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또 전 세계 110개국에서 사역하며 각국 죄수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한 재활의 힘을 길러 주고 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보완적인 연관에 새롭게 종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전송기,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어드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원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대만어/타이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필리핀어/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필리핀어/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필리핀어/태국어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미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자베스 에드워드수정판대성경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요상 불타오르는 특별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50x30x40cm) 한국산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요상 불타오르는 특별한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의 성구사 (50x30x40cm) 한국산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요상 불타오르는 특별한 디자인

여타에도 다양한 특별정품의 크리스탈 성구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 447-4011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6. 성경의 쿵금종들(7) - 근친결혼은 왜 안 되는가?

요즘 캘리포니아 한인 교계에서는 SB48 법안을 무효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SB48 법안은 비 성경적인 결혼 형태들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도록 하는 법으로 주 의회에서 간단하게 통과 되었고 2011년 7월에 주지사인 브라운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되었다.

성경은 또 다른 형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근친결혼(近親結婚)이다 (레18:9, 신27:22). 그러나 이 결혼은 동성결혼과는 달리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려했던 것처럼 보인 때도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고르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기 고향 친척들 중에서 골라오도록 하였다. 이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복누이인 사리와 결혼하였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이복사촌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위로 몇 세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세 자녀들이 나타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형제와 자매가 혹은 친 사촌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을 의심하는 아주 흔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라는 질문인데 자기 자매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음에 틀림없다. 성경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백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5:4).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근친결혼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근친결혼을 금지하게 되었을까?

근친결혼하면 유전병 종류 더 많아지고 발병 빈도도 높아 모세시대 이전엔 좋은 지구환경으로 돌연변이 가능성 낮아



해 그것을 금지하셨으므로, 지금은 이 새로운 법에 순종을 해야 한다. 과학은 결국 이 법이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근친결혼은 유전병들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하고 그 발병 빈도도 훨씬 높아지게 한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들 중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양쪽 부모에게서 거의 동일한 양의 유전정보를 물려받는다.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아주 적은 양의 유전정보를 제외하면 각 부모에게서 받는 유전정보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유전정보를 두 별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정보들 중에 아버지에게서 온 정보의 A부분이 돌연변이에 의해 결함이 있

을 수가 있다. 이 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정보의 A부분이 정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자녀는 거의 문제를 느끼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B정보에 결함이 있어도 아버지의 B정보가 정상이면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두 정보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친결혼을 할 경우를 보자. A라는 유전정보 두 개 모두에 문제가 있는 아빠(A'A'이라 표시함)와 정상인 엄마(AA)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두 개의 유전정보들 중에 하나는 정상 다른 하나는 비정상인 보균자(A'A)가 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A덕분에 자녀들에게는 유전병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균자인 아들(A'A)과 딸(A'A)이 결혼하여 태어날 3세대의 유전정보는 다음 4가지 경우들 중에 한 경우가 된다. (A'A), (A'A), (AA), (AA). 그러나 보균자(A'A)인 아들이나 딸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온 배우자(AA)를 만났다면 3세대 중에는 유전병(A'A)이 되는 조합이 생길 수 없다. 근친결혼의 폐해의 대표적인 예로는 진화론의 대부인 찰스 다윈 가

결혼을 금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모세 이전에는 그런 법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가 아니신데 왜 법을 바꾸신 것일까?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야기된 유전정보의 타락에 있을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홍수까지 그리고 방하시대의 원인이 되었을 바벨탑 사건까지 지구 환경은 현재에 비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유전정보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았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완전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유전정보에 점점 많은 돌연변이가 쌓이게 되었을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살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쌓여진 돌연변이의 빈도가 위험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초기에는 근친결혼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노아홍수 후 약 85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는 근친결혼을

할 경우 자녀들에게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주셨을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수명 변화를 보면 범죄 직후부터 노아홍수 이전까지 900년 이상이었지만 노아홍수 직후에는 450년이었다. 또 다시 바벨탑(방하시대) 이후부터 수명은 250년으로 급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급기야 모세 시대에는 70세가 보통이 되었다. 환경 악화도 큰 몫을 했겠지만 대대로 유전정보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 사실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 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사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인류의 역사가 수십만 년이었다면 지금의 돌연변이 속도로 보건대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각종 유전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완전했던 처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범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구가 멸망된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방하시대와 인류의 분산을 겪으며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었기에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지구에 오신 것이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남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예수님 형상으로 내면치유가 일어나는 성경인물 묵상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화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뜻입니다. 이 큰 뜻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만남, 환경, 사건들은 형상화를 위한 필연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만남들 속에서 버려야 할 죄성을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회복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버릴 것을 버리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로 바라보며 주님 닮는 자되도록 우리를 점차 다듬어 가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 환경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각 인물이 되어보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어느 부분을 다듬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듬어 가신 손길에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들이 풀리지 않게 해줍니다. 회개할 부분들, 잘라 버려야 할 못된 마음들, 마땅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 나아가 현 지점에서 자신이 할 일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내 삶의 방향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훑어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묘한 삶의 지도를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게 해주어 주관적으로 사사모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여러모로 지경을 넓히는데 성경인물묵상은 큰 유익이 됩니다. 일반 말씀큐티가 현미경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인물묵상은 나무 한 그루 전체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인물묵상을 통해 저들의 고뇌와 환희 속으로 뛰어들어 저들의 심정과 함께하며 하나님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저는 상상의 외로운 복을 받았습시다. 그들의 심정과 하나 되며 그들이 선택해가는 과정 속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다스림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분명히 보이는데도 쉽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달리 선택했을 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게 다가오며 내 현실의 상황에서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인지 확신하고 나아가기 쉬워졌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택한 인물과 같은 선택을 하던지, 하나님의 길을 밟아내고 방향의 길을 택한 인물들을 보며 나 자신은 저들의 길을 물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쉬워졌고 그로 인해 말씀의 약속대로 부여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시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여주시는 사랑의 손으로 이웃에게 손 내미는 것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스탄트화 한 현대입니다. 말초 신경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현대병에 사고하는 능력이 상실 되어가는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위기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더불어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혼란스런 삶 가운데 다가가 손 내미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해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동일한 만남으로 우리 모두 힘든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사모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돌이켜 하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시119편중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부제: 오전 8:30 / 주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주일 8:00 / 수일/부제: 오후 11:00 Tel: (704) 441-0821, Fax: (704) 441-1825 26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17	맨바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부제: 오전 8:30 / 주일/부제: 오전 11:00 / 금요일/부제: 오후 7:00 Tel: (704) 422-0436, Fax: (704) 422-0443 7760 Ridge Rd, Arden, NC 287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주일 8:00 / 수일/부제: 오전 8:00 Tel: (704) 322-0891, Fax: (704) 322-7777 1260 Morris St, Lenoir, NC 28646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부제: 오전 8:00(한국어) / 수일/부제: 오전 10:30(영어) / 수일/부제: 오전 11:30(영어) / 수일/부제: 오후 8:00 Tel: (252) 449-1922, Fax: (252) 449-2662 1550 Woodrose Rd, Lenoir, NC 28647	멜빌교회 담임목사: 전용배 주일/부제: 오전 7: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주일 8:00 / 수일/부제: 오후 8:00(영어) Tel: (410) 439-1222, Fax: (410) 439-0823 2965 St. Anne Lane, Essex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금요일/부제: 오후 8: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주일 8:00 / 수일/부제: 오후 11:30 / 수일/부제: 오후 11:30 Tel: (508) 425-4278, Fax: (508) 425-2487 2 Main St, Boston, MA 02108	플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8:00 Tel: (410) 337-8444, Fax: (410) 337-8444 1825 Sandway Ave, Hunt, Maryland, MD 2103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부제: 오전 8:00 / 수일/부제: 오전 10:45 / 수일/부제: 오후 8: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수일/부제: 오후 11:00 / 수일/부제: 오후 11:00 Tel: (254) 359-0905 / (800) 663-3888 701 Scoville Blvd, Charlotte, NC 2825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종교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0:00(영어)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7:00 Tel: (305) 425-2917 6007 Pacific Ave, Box 10, B21 8358, Lacey, WA 98503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부제: 오전 10:00 / 수일/부제: 오전 11:15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주일 8:00(영어) / 수일/부제: 오후 8:00 Tel: (206) 321-0281, Fax: (206) 321-1749 4610 N. E. 125th St, Seattle, WA 98125 www.kjpc.org	알라바마 재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전 4: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8:00(영어) Tel: (205) 870-8048, Fax: (205) 425-3179 805 Kirby Dr, Lenoir, NC 28647 www.kjpc.org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부제: 오전 10: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7:30 / 수일/부제: 오후 7:00 Tel: (907) 344-6445, Fax: (907) 344-3187 8320 Adairway St, Anch, AK 99518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박재수 주일/부제: 오전 8:00(영어) / 수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후 7:30 Tel: (214) 352-5480, Fax: (214) 352-4288 3418 Arise Ave, Ft. Worth, TX 761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부제: 오전 7:30 / 수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2: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후 8:00 Tel: (713) 542-0288, Fax: (713) 542-6027 710 Wheeler Ave, Houston, TX 77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7:30 / 금요일/부제: 오후 8:00 Tel: (254) 354-0705, (254) 351-8823 428 N. 8th St, Abilene, TX 7960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부제: 오전 8: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영어) / 금요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8:30(영어) Tel: (360) 397-4447, Fax: (360) 397-4448 4213 Matthews St, Everett, WA 982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8:00(영어) Tel: (804) 278-7000, Fax: (804) 278-7554 10201 Robison St, Richmond, VA 23235	큰문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8:00 / 새벽기도: 오전 8:00(영어) Tel: (410) 209-0516, Fax: (410) 202-2523 3264 Corporate Center Blvd, Elkton,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주일 8:00(영어) / 수일/부제: 오후 8:00(영어) Tel: (253) 929-1918 746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형 주일/부제: 오전 8:00 / 수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수일/부제: 오후 7:30(영어) Tel: (253) 925-0217, (253) 925-8424 8424 E. Yakone Ave, Tacoma, WA 984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수일/부제: 오후 8:00 / 새벽기도: 오후 8:00(영어) Tel: (253) 929-0875, Fax: (253) 929-0875 8424 E. Yakone Ave, Tacoma, WA 98444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8:30(영어) / 수일/부제: 오전 10:50 / 수일/부제: 오전 12:30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주일 8:00(영어) / 수일/부제: 오후 8:00(영어) Tel: (480) 778-0115, Fax: (480) 778-3827 1920 E. Deane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0:00 / 수일/부제: 오전 12:00 / 수일/부제: 오후 7:45 / 새벽기도: 주일 8:00 / 수일/부제: 오후 8:00(영어) Tel: (860) 449-4738, Fax: (860) 449-6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제: 오전 8: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7:00 / 새벽기도: 오전 8:30(영어) Tel: (808) 732-0911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부제: 오전 8:0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전 11:30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8:30(영어) Tel: (903) 729-7004, Fax: (903) 729-4282 1063 3th Ave, Houston, TX 77015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8:00(영어) Tel: (808) 377-2536, Fax: (808) 377-2522 1367 E. Bartelsia Rd, Hual,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부제: 오전 8:00 / 수일/부제: 오전 11:00 / 수일/부제: 오전 11:00(영어) / 수일/부제: 오후 7:00 / 수일/부제: 오후 7:00 / 새벽기도: 오후 8:00 Tel: (808) 947-4282, Fax: (808) 947-4187 2122 Malakoi Rd, Honolulu, HI 96822	



남가주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지휘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교회음악협 '지휘 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는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회장인 조 사이브 박사(USC 지휘과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28일 오후 5시 윌셔연합감리교회 찬양대실에서 '지휘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남가주의 한인교회 뮤직디렉터와 지휘자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교회에서 찬양대를 어떻게 지도하며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사이브 교수의 강의내용 하나하나 집중하며 듣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제26회 성결포럼에서 이상훈 박사가 발제강연을 하고 있다.

'선교적교회를 통한 목회패러다임의 갱신'

제26회 성결포럼, 발제강연 이상훈, 논찬자 피터임 박사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가 주최한 제26회 성결포럼이 '선교적 교회를 통한 목회 패러다임의 갱신'이란 주제로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본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황의정 박사(기획처장)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강연에 나선 이상훈 박사(폴리신학교, 미주성결대학교 교수)는 "20세기 위기에 처한 서구교회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선교적 교회운동은 그 본질적 고찰과 실천적 방안이 있어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선교적 교회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선교적 교회운동은 교회의 사명과 사역적 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한다. 만일 교회지도자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있다면 제도화되고 고착화된 무력해진 교회들이 다시금 선교적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도화된 교회의 위기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고자 나타난 것이 이머징교회운동이다. 그러나 이머징교회를 단지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이머징교회는 복음주의자로 구성된 신학자체보다 예배행식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결주의자와 복음과 성경의 정통적 시각으로 성육신적인 재건주의자 등 다양하게 분포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피터임 박사(LA 소망교회 담임, 윌리엄제트대학교 교수, 폴리신학교 객원교수)가 논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예배와 음악 심포지엄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의 음악, 무엇이 문제인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는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의 음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예배와 음악 심포지엄을 지난 26일 저녁 7시30분 본교 채플실에서 개최했다.

미주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전문 음악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실기와 이론을 가르쳐온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윤임상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합창지휘자 진정우 박사,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앤처치 담임), 예배학교 수인 김은철 박사(본교 목회학박사 과정 및 폴리신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은철 박사는 '한국교회음악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희중찬송과 교회역사 △음악과 하나님의 신비 △시대를 향한 교회음악의 특별한 책임이라는 소주제로 나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다. 음악이 주는 특별성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진정우 박사는 '예배음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최초의 서양음악은 물리학과 수학자들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양음악은 과학이지만 한국음악은 과

학이 아니며 피치가 일정한 서양음악에 비해 한국음악은 그렇지 않다"며 "나운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공상각치우에 입각해 작곡된 한국음악이다. 그러나 많은 연주자들과 음악가들이 이 곡을 잘못 이해해 서양식으로 연주하고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찬양은 특이 하 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섬김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찬양하는 자에 있으므로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기술적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의 음악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컨템포러리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의 발제자 정종원 박사는 "오늘날 교회는 찬양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합당한 찬양,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많은 찬양인도자들이 예배용 곡과 발표용 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찬양곡은 음악 이전에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곡"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예배와 음악 심포지움(사진 우측부터 정종원 목사, 김은철 박사, 진정우 박사, 윤임상 교수).

목회서신

무개념의 시대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요사시 시종에서 '개념이 없다'는 말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더러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개념 댓글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여건에도 월급을 쪼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한 여자를 다른 기사에 달린 리플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돕고 싶었다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월급 쪼개서 돈이 무슨 자랑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어안이 병병하기만 했습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개념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와 기준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옛것제 본국의 신문을 보니까 교회장소를 매매할 때 교인숫자까지 사고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능력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개념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들로서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유도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무개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게 될 치명적인 상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개념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 권사 등 교회 중직자들의 언행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개념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지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개념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책임 있게 행할 때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양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다"

미주복음방송 제2회 선교회원의 밤 1천명 참석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박신욱 목사) 선교회원의 밤 행사가 1천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윤우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이영배 장로(GBC선교회 원 대표)의 개막기도에 이어 GBC선교회장단(지휘: 김승철, 반주: 이경아)이 특연영가, '원해', '이제 곧 그 날 보리라', '주의 영광 선포하라' 외 다수 곡을 불러 노래가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찬조로 출연한 LA남성선교회장단(지휘: 원영진)은 '세상을 사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 '섬도어 다 함께' 등을 불렀고, 이어서 영엔젤스 어린이합창단(지휘: 장인준)이 Jesus Teach Me 외 2곡을 불러 큰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기홍 목사는 무대에 올라 사도행전 16장 25절-26절을 본문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마귀가 물러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인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한다"고 설교했다.

미주복음방송은 AM 1190, FM 88.3 그리고 KGBC 인터넷과 아이폰을 이용, 전 세계 어디서나 청취 가능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h2 style="color: blue;">세계로 나아가는 교회</h2> <h1 style="color: blue;">동부(NY, NJ) 교회안내</h1>		<h3>기쁨과 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정희수 교목목사: 케미현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월-토) / 오후 8:30(일)</p> <p>Tel: (718) 259-7883, 468 / (462) 679-8771 41-44 46th Ave, Flushing, NY 11357 E-mail: joyandglorychurch.com</p>		<h3>낙원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영광예배: 오후 8:45</p> <p>Tel: (718) 648-7788, Cell: (917) 648-8881 44-69 Queens Blvd, Queens, NY 11364 E-mail: newlandchurch.org</p>		
<h3>뉴욕셋째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2282, (718) 484-2222, Fax: (718) 484-2222 42-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setsanewyork.org</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45</p> <p>Tel: (718) 484-8184, Fax: (718) 484-8422 40-62 66th Ave, Queens, NY 11364 www.mokyang.org</p>	<h3>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월-토) / 오후 8:30(일)</p> <p>Tel: (718) 484-1877, Fax: (718) 484-1881 2 Beacon Hill Blvd, Fort Washington, NY 11360</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7:30 영광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전 8:30</p> <p>Tel: (718) 484-2810, Fax: (718) 484-3411 48-9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ewsaaram.org</p>	<h3>뉴욕순복음안다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7282, Cell: (917) 484-7777 42-67 162 St, Flushing, NY 11358 www.annadachurch.com</p>	<h3>뉴욕중부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전 8:45(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7282, Cell: (917) 484-7777 42-67 162 St, Flushing, NY 11358 www.mcfchurch.com</p>	<h3>뉴욕주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월-토) / 오후 8:30(일)</p> <p>Tel: (718) 484-7282, Cell: (917) 484-7777 42-67 162 St, Flushing, NY 11358 www.judachurch.org</p>
<h3>뉴욕효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문철호 원목목사: 방지환 1부일부예배: 오전 7:15 2부일부예배: 오전 8:30 3부일부예배: 오전 10:15 4부일부예배: 오전 12:00 5부일부예배: 오후 1:30 6부일부예배: 오후 3:00 7부일부예배: 오후 7:30 8부일부예배: 오후 8:30 시계기도: 새벽 8:00(월-토)</p> <p>Tel: (718) 484-4758, 4822, Fax: (718) 484-3111 42-75 162th St, Flushing, NY 11355</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박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월-토) / 오후 8:30(일)</p> <p>Tel: (718) 484-8184, Fax: (718) 484-8422 40-62 66th Ave, Queens, NY 11364 www.mokyang.org</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영광예배: 오전 8:45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1877, Fax: (718) 484-1881 31-67 164 St, Flushing, NY 11358</p>	<h3>풍아일랜드성결교회</h3>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광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전 8:30</p> <p>www.windisland.org Tel: (718) 259-7883, 468 / (462) 679-8771 41-44 46th Ave, Flushing, NY 11357</p>	<h3>메디나교회</h3> <p>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3980, Cell: (917) 484-3980 42-67 162 St, Flushing, NY 11358 www.medinachurch.org</p>	<h3>어린양교회</h3> <p>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4758, 4822, Fax: (718) 484-3111 42-75 162th St, Flushing, NY 11355</p>	<h3>유니온연합감리교회</h3> <p>담임목사: 박재철 1부 기도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5부 예배: 오후 6:30 6부 예배: 오후 8:00 7부 예배: 오후 8:30</p> <p>Tel: (718) 484-4844, Cell: (917) 484-4844 48-75 162th St, Flushing, NY 11358 E-mail: unionchurch.org</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후 12: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영광예배: 오후 8:30 시계기도: 오후 8:30</p> <p>Tel: (718) 484-4844, Cell: (917) 484-4844 70 Flushing Rd, Manhattan, NY 11355</p>	<h3>주신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부예배: 오전 12: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7041, 7042 188-12 72 Ave, Fresh Meadows, NY 11366</p>	<h3>중부뉴저지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영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p> <p>Tel: (718) 484-0622, Cell: (917) 484-0622 445 One First Road, Edison, NJ 08827</p>	<h3>핀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새가족기도: 오후 2:30</p> <p>Tel: (718) 484-4844, Cell: (917) 484-4844 149-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kings.org</p>	<h3>핀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7282, Cell: (917) 484-7777 42-67 162 St, Flushing, NY 11358 www.pineschurch.org</p>	<h3>한미음침교회</h3> <p>담임목사: 박재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영광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718) 484-4758, 4822, Fax: (718) 484-3111 42-75 162th St, Flushing, NY 11355</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h3> <p>LA: Tel: (310) 995-0709 2부 찬양예배: 오전 8:30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p>
<h3>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남미지역</h3>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박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00 시계기도: 오후 8:40</p> <p>Tel: 2277-1488, Fax: 2204-8242 Rua America Plaza, 251 Cambridge 2, Paulo Cep 05328-0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45</p> <p>Tel: 011-55-11-2879-8223, 2879-5261 R. União Alvor W Ilheus, São CEP 01565-018</p>	<h3>브라질 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p> <p>Tel: (55) 11-9999-8764, 8692-1188 RUA SANTA CRUZ, 258-PAULISTA SÃ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임교회</h3> <p>담임목사: 최병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p> <p>Tel: (54) 011-437-1758 AV. CALABAZO 1353 CAP.FED., B.R.,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박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가족기도: 오후 8:00 시계기도: 오후 8:30(월-토) / 오후 8:00(일)</p> <p>Tel & Fax: (56) 2-2558-7828, (56) 2-2558-8389 Santiago Curve - 7 Calle 625 Chib</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 E-mail: pastor@paraguay.org Carverton MO, 1301, Anacón-PARAGUAY</p>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체육대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가 5월 28일(월, 메모리얼데이),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제 27회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경기종목은 배구(청소년팀, 청년팀, 장년팀, 여성팀), 족구, 축구(선착순 8팀)이며 참가비는 팀당 200달러(축구 250달러). 참가 자격은 교회출석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은 한인이어야 한다. 당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은 5월 16일(월).

▲문의: (718)358-0074

미동부 한인목회자 체육대회

미동부 한인목회자 체육대회가 오는 8일(화) 메릴랜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목사회, 뉴저지목사회, 필라델피아목사회, 버지니아목사회, 메릴랜드목사회가 참여하는 이 체육대회 경기종목은 배구(9인조) 3전 2승제, 축구(11인조) 토너먼트(전, 후반 20분), 족구(4인조) 3전 2승제, 줄다리기(20명) 토너먼트(3전 2승제)로 진행된다. 선수참여와 훈련은 이장남 목사(646-772-5947)에게 문의해야 한다. 참가자는 오전 6시, 플러싱 156가 맥도날드 앞에 모여 버스타임을 원하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문의: (646)270-9037(김희복 총무), (646)287-7169(김홍석 서기)

뉴욕목사회 세미나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세미나가 22일(화) 오전 10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상환 목사(명성교회 담임). 선착순 250명에 한하며 참석자는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646)270-9037(김희복 총무), (646)287-7169(김홍석 서기)

제 4차 한미의료선교대회

46개 초교과 선교단체가 참가하는 제 4차 한미의료선교대회가 5월 18일(금)과 19일(토) 양일간에 걸쳐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주회는 KPM과 KAMHC.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행1:8)라는 주제로 강사는 김준근 자마대표, 정민영 위클리프 선교사, 데이빗 스테벤스 미국의료협회 회장, 로스 화이트 케냐의료선교사 외 25명의 워크숍 강사. 등록비는 의사(차과) 100달러, 기타 의료인 50달러, 목사/선교사/학생 20달러, 비의료인 및 기타 50달러이다. 2세학생들을 위한 스튜던트 트랙은 영어로 진행된다.

▲문의: (714)444-3032 이메일 kamhc@gmail.com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제 62차 정기노회가 오는 8일(화) 오후 7시 뉴저지 하나교회(190 Vally Blvd., Wood-Ridge)에서 열린다.

▲문의: (201)669-7528

효도잔치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효도잔치가 5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점심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흥과 함께 특별한 상품과 선물도 준비된다.

▲문의: (914)393-1450 김영환 목사

뉴욕밀알여성선교합창단 정기 연주회

뉴욕밀알여성선교합창단(지휘 이정진 장로) 2012 정기 연주회가 오는 6일(주) 오후 6시 뉴욕 열방교회(담임 안해권 목사)에서 열린다. 협연으로는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과 테너 여가재, 메조소프라노 이유진 그리고 밀알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공연한다.

▲문의: (718) 460-5108

할렐루야 뉴욕대회 강사에 이태희 목사

뉴욕교협 “WCC와 무관한 예정합동 목회자 선정” 강조

2012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로 이태희 목사(서울 성북교회 담임)가 결정됐다.

올해 33회를 맞는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변하여 새사람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7월 6일(금)부터 8일(주)까지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어린이대회도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청소년대회는 7월 26일(목)부터 3일간 역시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은 지난 30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언론의 협조를 부탁했다. 양승호 목사는 현 교계의 상황 등을 고려해 WCC와 관계 없는 합동 측 목회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대회를 마치고 비판하는 것은 관중이나 강사나 조직에 대한 악성댓글이 달려 대회를 열기도 전에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지난해 개최됐던 목



할렐루야대회 강사 이태희 목사
회자 컨퍼런스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교협은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담임)를 선임했으며, 대회 조직 발표는 5월 9일(수) 오전 11시 할렐루야뉴욕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회는 4회의 준비기도회를 통해 하게 된다.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는 “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강사”라며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대회를 통해 그동안 반목하던 것이 묶는 녹듯이 화합하는 아름다운 대회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사 이태희 목사는 지난해 뉴저지 호산나대회 강사로 초청된 바 있으며 현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비전코리아21 중앙협의회 총재,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 민주평등자문위원,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증거회장, 수동기도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주웨슬리부흥단 새단장에 양민석 목사

내년 런던 웨슬리채플 및 생가방문 추진

미주웨슬리부흥단이 내년 4월 부활절 이후 영국 런던 웨슬리채플 및 생가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부흥단은 새 임원단을 구성하고 올해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1981년에 시작된 연합감리교(UMC) 미주웨슬리부흥전도단(Wesley Evangelical Crusade, USA)으로 출발해 2012년에 들어서면서 신년성회(강사: 이용복 목사)를 시작으로 새 임원단을 조직했다.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양민석목사(뉴욕그레이크넷한국인교회) △부회장: 김종일목사(뉴욕성서교회) △총무: 장재웅목사(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서기: 정광원목사(스테튼아일랜드교회) △회계: 김남석목사(뉴욕드림교회). 이외에 △고문: 김상모 목

사 △자문위원: 김재경, 김영식 목사 △편집부장: 조영철 송성모 목사 △홍보부장: 이종범 목사 △학술부장: 이용복 목사 △신앙부장: 강원근목사 △친교부장: 최윤돈 목사 △청소년부장: 윤국진 목사 등을 선임했다.

한편 웨슬리부흥단의 올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4년까지 30주년기념 책자 발간 △새생명 전도훈련(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웨슬리 회심 기념주간 집회 및 세미나 △해외단기선교, 신년금식성회.

자세한 문의는 장재웅 목사(WEC 총무, 631-292-2529)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영국 감리교 본부 건물

“복음의 절대적 진리 수호한다” 뉴욕리폼드신학교 재학생대상 WCC 특강 개최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박사)가 지난 30일 저녁 본교에서 김재호 목사(뉴욕시온산장교회 담임)를 강사로 WCC 특강을 개최했다. 동 신학교 주 야간 학생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김재호 목사는 지난 수년 동안 WCC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 정리한 내용을 강의하며 “내년 부산 개최를 앞두고 한국과 미주 교계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WCC의 실체에 대해 앞으로 바른 신학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열 학장은 “성경말씀을 떠나 시대적 사상에 편승한 연합과 하나됨의 위헌성을 경계하며 복음의 절대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 신학교는 오는 27일(주) 오후 5시 제 4회 졸업식 및 2012학년도 불학기 종강예배를 갖는다. 이번 졸업식에는 대학원 3명, 학부 1명 등 총 4명이 졸업한다.

▲문의: (917)862-0523, (718)961-2171



나눔의집 후원 음악회에서 뉴욕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한인 홈리스 재활을 위한 후원음악회 나눔의집, 나눔의집 공동주최, 뉴욕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공연

뉴욕 나눔의집(나눔미션 대표 배영란 권사, 디렉터 이종선 목사)가 1주년과 C-ZONE(대표 문석진 목사) 3주년 기념 후원음악회가 지난 29일 저녁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렸다. 뉴욕 한인 홈리스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음악회는 뉴욕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 김진환)가 공연했다.

문석진 씨즌 대표는 “작년 4월 씨즌 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한인노숙인의 쉼터 ‘나눔의집’은 명실상부한 뉴욕한인노숙인의 쉼터로 자리잡았다”며, “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기독교인과 미주한인사회가 함께 참여해 이룩한 귀한 열매”라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를 마친 후 그동안 나눔의집에 매일 김치를 제공해준 산

수갑산과 성금후원을 한 퀸즈한인회(회장 이명석)에 감사패를, 김철원합동법률사무소(대표 함승환 변호사)에게 위촉패가 전달됐다.

이날 행사는 전영실 아나운서의 사회로, 뉴욕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에드워드 엘가의 세레나데,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겨울 연주, 환영사 문석진 씨즌대표, 내빈소개 및 인사, 뉴욕클래시컬심포니오케스트라의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과 겨울 연주, 나눔의집 홍보 영상상영, 노숙인 사역소개 이종선 디렉터, 후원약정기도 김종훈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후원약정의 시간 전영실 아나운서, 인사 및 광고 배영란 나눔미션대표, 감사패 및 위촉패 수여 박성원 이사장, 만찬기도 윤세웅 목사(KCBN이사장)의 순서로 진행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WCC 특강이 진행되는 모습

www.sbm.or.kr

크리스천이 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박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I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대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운영

뉴욕교향 **스타가비**
뉴욕교향 **스타가비**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다**

24시간 **오픈**

전화번호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4.29폭동 20주년...사랑으로 하나 되자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 KCCD 등 기념행사 줄이어

4.29폭동 20주년 기념 남가주 영적대각성집회가 '치유와 화합과 은혜가 넘치기를'이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원팔연 목사. (우측)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다민족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4.29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의 목사와 통역하고 있는 임혜빈 KCCD회장 (좌측)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새벽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금요일 저녁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토요일 새벽 남가주사랑의교회, 토요일 저녁 일바인침례교회(한중수 목사), 주일 오전 바울교회(이경휘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년 전 LA는 폭동으로 6.25 한국전쟁을 연상케 하는 폐허가 됐다. 그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날 LA한인사

회가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상처를 치

유하고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후 3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는 KCCD(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주관으로 한인교인회는 물론 다민족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20년 전의 이날을 회상하며 재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변영의 목사는 "인종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사랑으로 하나돼 손에 손잡고 이 땅을 아름답게 이뤄나가자"고 강력했다.

또한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커뮤니티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LA 커뮤니티 영웅 시상식과 러브인뮤직과 크렌쇼 엘리트 콰이어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샌버나디노지역 경로잔치

샌버나디노지역 경로잔치가 13일(주일) 오후 4시 장대교회(담임 이춘준 목사/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에서 열린다. 장대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찬과 장구춤을 비롯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선물도 증정한다. ▲문의: (909)388-2940

어버이날 기념 감사 디너쇼

아로마 더원벙겟홀에서는 오는 13일(주) 오후 5시 제 1회 어버이날 기념 감사 디너쇼를 개최한다. 100명 한정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본 디너쇼는 최고급 식사와 김응화 무용단, 진 발레스쿨이 준비한 특별공연으로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날 사회는 이영돈 씨가 맡게 되며 장미꽃과 선물 증정도 있다. ▲문의: (213)387-7575

주님의영광교회 토요학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학생 및 성인들의 언어, 음악/체육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되고 있는 '글로벌 수퍼 세터데이' 제 3차 과정이 5월 5일부터 10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위한 발레, 북클럽, 미술/아트 및 태권도, 중학생들을 위한 리딩클럽, 수학, 음악(첼로, 바이올린, 키보드), 태권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SAT,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중국어회화, 음악 (기타, 키보드) 및 체육(다이어트 컨트롤) 등의 과정이 오픈돼 있다. 과정 수강료는 총 10주간 일반 과정 150달러, SAT는 350달러이다. ▲문의: (213)749-4500

나성한인교회 러브 페스티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성민 목사)가 주최하는 러브 페스티벌이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최된다. 일정은 △5월 4일 양은순 교수(His University 총장)가 '은혜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11일 가정상담사 사역자인 서철원 목사가 '문제의 가정이 사랑의 잔치로' △18일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담임)가 '기쁨이 충만할 나의 자녀'로 △25일 김성민 목사가 '행복한 가정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각각 설교를 인도한다. ▲문의: (323)221-9531

다솜교회 찬양과 간증의 밤

다솜교회(담임 이근환 목사)는 찬양과 간증의 밤을 5월 11일(금) 오후 8시에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찬양과 간증을 들려주게 된다. ▲문의: (562)405-1988

남가주믿음의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과 지상 대계명에 헌신할 주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을 통해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

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확장해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문의: (213)383-0191, (562)822-7511

(박준호 기자)



남가주믿음의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김원종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온하늘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찬양인도하고 있는 연제선 담임목사.

온하늘교회 설립감사예배

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지난 22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날 연제선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온하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막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죽을 썬치고, 죽을 만큼,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자"고 말했다. 이날 축사는 최형관 목사(LA은혜교회)와 안경찬 목사(남가주왕성교회)가 격려하는 이창배 목사(북음대학)가 했으며 이경천 목사(오레곤 에덴장로교회), 유봉호 목사(일본 교토 성복교회), 송서홍 목사(청주중부명성교회), 김광현 목사(서울성은교회/백석대학교), 김위식 목사(스코틀랜드 홀리그라운드 커뮤니티교회), 김만재 목사(파키스탄), 박순중 목사(인도) 등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이날 예배는 정순규 목사(옥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언약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감사예배를 마친 임직자들과 관계자들

LA언약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예배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예배가 지난 29일 오후 2시에 열려 장로장립에 이우진, 권사취임에 문선자, 박성숙, 유연희 씨를 각각 임직했다.

없다는 것이다. 받은 말씀가지고 나가서 실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목사는 "임직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이름으로 온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자들이 돼 복음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서약문단, 안수기도, 공포, 성의작용으로 이어졌으며 지윤성 목사(미주서부노회 중경노회장)가 권면, 임영호 목사(미주서부노회 부서기)가 축사를 했으며 박재용 목사(미주서부노회 중경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믿음의교회 설립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남가주믿음의교회(담임 김원종 목사)는 설립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29일 오후 4시 30분 성광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원종 목사는 "젊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7년 그리고 미국에서 12년간 오렌지한인교회와 나성한인교회에서 배운 것은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무릎 꿇는 참된 양치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인도 이종휘 전도사)의 찬양인도와 이동배 목사(바우엘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문상면 목사(세리토스우리교회)가 기도, 서혜선 권사(나성한인교회)가 특송을 불렀으며 백운영 목사(GP선교회 미주대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교회'(영5:9-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지윤성 목사(안디옥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김원종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했다. 이날 예배는 안기정 목사(나성한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설교를 맡은 백운영 목사는 "말씀 속에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부각하는 말인데 숫자가 붙어났다는 것으로 들려진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 교회가 세계전역 죽어가는 영혼에 복음전하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를 모토로 삼고 출발하는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미 기독교 지도자 기도성회 및 세미나

본 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들이 금번 미주지역 방문에 즈음하여 남가주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과 조찬을 나누며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12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기도성회와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일반사항

일시: 주후 2012년 5월 15일(화) 오전 7:30분
장소: 만나교회(구, 나성한인감리교회)
주소: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213)365-6191

2. 기도회 및 세미나

1부 예배설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
2부 세미나: 전광훈 목사(청도교영성훈련원장)

3. 문의 및 기타

LA 새문안교회 818-448-4149 / (818)842-5925
조찬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회비없음)

주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신목 목사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지도자협의회 준비위원회 김종원 목사
후원: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원로 목사회



7개 교단, 찬송가 다시 제작하기로 21세기 새 찬송가 저작권 출판권 둘러싼 고민 때문

[CBS 노컷뉴스]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재)찬송가공회가 만든 21세기 찬송가 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개 교단이 찬송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찬송가위원회는 2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어 지금의 찬송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찬송가위원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회 찬송가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고 가사와 음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성식 목사(한국찬송가공회 총무)는 "현재 찬송가의 판권과 저작권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측에 속해 있어 이를 회수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들이 찬송가를 다시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21세기 새 찬송가의 저작권과 판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위원회는 다음달과 9월에 열리는 회원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교단적 결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찬송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측과 감리교, 기장, 기성, 침례교, 예장고신, 기하성 등 모두 7개 교단이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1년간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통합측 위원들이 이번 총회부터 다시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강행 시도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미선라이프]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의 우려와 기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곽 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학생인권옹호관 신설과 시행규칙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했다. 여론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신설되면 교권 약화와 함께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조례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안을 조사,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번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도 곽 교육감이 이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만 하면 장기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곽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학교를 감시하기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생인권보다 더 중요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따라 한국찬송가위원회는 다음달과 9월에 열리는 회원 교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교단적 결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찬송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측과 감리교, 기장, 기성, 침례교, 예장고신, 기하성 등 모두 7개 교단이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1년간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통합측 위원들이 이번 총회부터 다시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수련회,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한국성결협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등 30여개 기독교·시민단체들도 이날 '징역 1년 선고 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려는 '꿈수'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범국민적인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곽노현표 교육정책'만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안하무인'식 교육운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30여국 9만 국내 유학생을 미래 선교사로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코스마) 4월30일 창립예배

[미선라이프]K대에서 박사 과정 중인 중국인 스차이(가명·27)씨는 국내 유학생 선교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스차이씨가 5년여 한국 유학 생활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산권 선교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신앙훈련을 거친 그는 현재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중국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스차이씨의 경우처럼 국내 유학생들을 섬기고 영적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단체가 설립된다. 30일 오후6시30분 서울 노량진동 CTS기독교 TV 3층 리치컨벤션홀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는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코스마·KOWSMA)가 바로 그것.

코스마는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국내 유학생 선교 단체의 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결성됐다. 코스마 이사장은 노항모(서울 우리들교회)목사, 대표회장은 김민섭(경기 도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목사가 추대된다. 상임회장은 장현일 대한민국의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실

무회장은 문성주(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원장) 목사와 장영백(건국대학교) 장로, 사무총장은 김변호(영광교회) 목사가 맡을 예정이다.

코스마는 국내 유학생들이 필요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GLA)를 운영한다. 유학생 정기 목요찬양집회(유목)를 열어 복음 전파와 영적 재충전 및 상호 교제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동아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각 기독교 동아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복음적인 삶을 영위하게 할 계획이다.

유학생 선교 콘퍼런스 개최, 국제 유학생사단 운영, 장학 및 복지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와 대학교 연계해 국내 유학생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 정부 및 대학이 보다 효과적인 국내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마는 27일 미리 배포한 창립 취지문을 통해 "2012년 현재 230여개국에서 온 9만여명의 유학생이 국

산동선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山東)

[미선라이프] 올해는 예장 합동과 통합의 모태라 일컫는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키로 결의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산동 선교 100주년이 역사적 조명을 받는 것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중국 일본 인도를 제치고 한국교회가 먼저 산동에 해외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교회는 아시아교회 최초로 타문화권 국외 선교를 100년 전 감행하는 선교열정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장 통합은 30일 서울 장신대에서 '산동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학술대회'를 열고 그 역사적 의미와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산동 선교 100주년이 역사적 조명을 받는 것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중국 일본 인도를 제치고 한국교회가 먼저 산동에 해외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교회는 아시아교회 최초로 타문화권 국외 선교를 100년 전 감행하는 선교열정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장 통합은 30일 서울 장신대에서 '산동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학술대회'를 열고 그 역사적 의미와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는 바가 크다.

1912년 산동에 선교사 파송을 결의할 때 한국교회의 교세는 목사 128명, 예배당수 1438개, 전례교인 1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주권을 상실한 조선교인들이 극심한 가난에서도 자신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던 산동에 선교사 파송을 결의한 것이다.

파송 선교사도 숭실전문학교 등을 졸업한 수준 높은 엘리트였으며 이들은 총회의 파송 결정에 그대로 순종했다. 일례로 홍승한 목사는 총회 부총회장으로 대구에서 교인 수만 1000명이 넘는 대령교회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의 선교 본받아야할 해외선교 모델로 인정

다 시기에 시작했으며, 일제의 패망, 남북한 분단, 중국 공산화 시기에도 진행됐다"면서 "일제 식민지 아래 있던 조선교회가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있던 중국에서 시행한 아

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의 선교"라며 조선교회의 산동 선교 의의를 설명했다.

북경사범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요한 새문안복지재단 해외이사는 "산동 지역은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반외세운동이 가장 격심했던 곳"이라며 "그러나 한국선교사들은 현지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선교를 펼쳤기에 현지인들이 반감과 악감정을 갖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사들을 보호해줬다"고 강조했다.

꺼이 나섰고 산동 선교를 통해 한중 양국에 복음정신에 입각한 상호우애 관계라는 새 방향을 만들어냈다.

최재건 연세대 교수는 "세계교회 선교 역사상 어느 교회도 그토록 빠르게 선교사를 파송한 적은 없을 것"이라며 "복음을 받은 대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산동 선교로 한국은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위치가 바뀌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1937년부터 1957년까지 산동선교사로 활동한 방지일 목사는 "산동 선교는 총회의 파송책임과 권위, 현지교회와의 협력이 절저히 지켜진 바람직한 선교 모델이었다"면서 "앞으로의 한국선교도 소명과 헌신을 갖춘 선교사의 선발과 파송, 선교사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행정, 가르치려는 하향식 선교가 아닌 배우고 함께하

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동 선교는 본받아야할 해외선교 모델=국내 교계에선 해외선교를 결정할 때마다 '국내 선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냐' '질사는 나라에 선교비를 왜 보내냐' 등의 반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100년전의 산동 선교는 여러 모로 시사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인의 선교=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12년 총회 창립을 기념해 해외로 선교사 파송을 결의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공자의 윤리 도덕을 받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갚자"는 김선주 목사의 제안이 시발이었다. 이 제안에 따라 미국 장로교 대표와 중국교회, 한국교회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그렇다면 선교지를 공맹(孔孟) 문화의 발생지이자 중국문화의 근거지인 산동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이어 박태로 사명선 김영훈 목사를 중국 산동으로 파송한다. 1913년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교회가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지 30년도 채 안 된 시점이 었다.

1917년엔 방효원 홍승한 목사, 김병규 조사가 새로 파송됐고 박상순 이대영 목사, 김순호 여선교사 등이 뒤를 이어 파송됐다. 1937년에는 방지일 목사(노량진교회 원로)가 산동으로 건너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종교탄압이 심해진 1957년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 선교사들은 '중국인에게 선교하려면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며 중국복장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선교에 힘썼다.

김교철 국제유학생선교회 상임대표는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한반도 식민지배가 본격화

목사·장로 1만명 한국교회의 희망 찾는다 예장 합동 5월 전국목사장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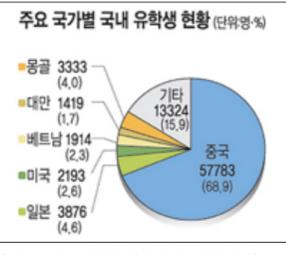
[미선라이프]오는 14-16일 부산 수영로교회와 일본 쓰시마섬에선 역사적 대회가 열린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목사·장로 1만명을 초청해 전국목사장로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목사장로대회는 교단 정치의 '꽃'으로 교단 리더십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 역할을 해왔으나 100주년을 기점으로 영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준비위원장인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를 도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뛰고 있는 정병갑(57·일산 신성교회) 박성규(61·부산 부전교회) 목사를 만났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후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회자들을 부산산조양교회로 모아놓고 구국 기도회를 드렸습니까. 눈물이나 기도회는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기폭제가 됐 습니다."

대회 부산개최의 영적 의미를 소개한 정 목사는 "총회 설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브라이언 채플(미국 커버넌트신대) 피터 릴베(미국 웨스트민스터신대) 총장이 주제 특강을 한다"면서 "은근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대회 전통을 잇고 최고의 강사로 교단의 과거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목사는 "첫째 날 저녁집회 후 신학선언서를 발표해 한국교회에 절대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자료: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내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유학생 선교는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230여개국에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예배에서는 박영률(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총무) 목사가 설교, 김상복 임신영 최희범 송용필 목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한다.

**혼돈과 공허의 불빛속에서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인문의 첫 빛과 후배 후성에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당신의 책임을 회복하는 과정들을 감동적인 문
소강석 목사가 처음으로 쓴다!
-서울연합 총신대 신대원장

특별한 저자의 신학적 통찰은 영의성과
영성변혁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준다!
-김원환 전 원로 총장

견고한 신학적 열거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로 하여 펼쳐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531면 / 18,000원

거룩한 전쟁

전쟁

소강석

연말의 소강석
소강석 목사

1966년생인 목회자로 동남아 한국
연인들, 학생으로 활동 중이며 새문안교
회 임원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
예·예 부흥의 열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를 주시며 주위에서 있
다.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장
총연합회상 최우수상, 2011년 부터 김 목회
이도 감동(연필)가 수여하는 구약(30년)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
회 신학(기독교총연합회) 및 대한민국의 신학(신학)을 수상했다. (일사)의
목회(신학)가 되었다는 순(순)에서 나오는 그의 감동(연필)은 많은 목회(신학)에 장
진(진)을 감동(연필)을 선사(선)하고 있다.

영적 전쟁 관련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누르다가
죽을 노래
이야기
30년 / 2011년

성도권
30년 / 2011년

베두인의
뉴모든
시경
30년 / 2011년

빛을 따르는 건
공부하는 내
이신
30년 / 2011년

출판: 서울연합총신대 신대원 | www.chpress.net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새라김 사모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TVNEXT.org) 설립자, Christian Coalition 한인대표

아는 게 힘!(8)

미국과 캘리포니아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치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정치와 사회문제 또는 문화차이라는 핑계로 방관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속박하는 수많은 반기독교적이며 비양심적인 법안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미국을 세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Dream Country로 불리울 만큼 축복받았던 미국이 세워진 지 236년 만에 지금처럼 최악의 길로 달리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대로를 달리고 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비추볼 때 경제력도 가장 취약하며,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멀어져있는 사회와 정부 정치 지도자들이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반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반 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삶속에 침투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세워놓은 정치인들, 판사들, 대통령에 의해 서입니다. 아니,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기에 우리들의 침묵이 지금의 병든 상황들을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투표 한 장은 미래를 살릴 수도 있고, 더욱 더 어둠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가치관 전쟁의 치열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결혼 진행: 미국에서 현재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를 나눠주고 있는 주(State)들은 총 8개로서 지난 2월에 합법화 된 워싱턴 주와 메릴랜드를 포함하여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버몬트, 뉴햄프셔, 뉴욕이 있고 주는 아니지만 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DC가 있습니다.

동성결혼 반대하는 연방헌법: 2000년도에 공화당을 통해 만들어진 DOMA(도마(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법안이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결혼은 남녀만의 연합일 때 법적으로 인정된다"라는 연방 헌법(Federal Constitution) 이 되었습니다.

Prop.8: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DOMA(도마) 헌법에 힘입어 Yes on Prop.8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투표에서 52:48로 통과되면서, 다시 한 번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결혼은 남녀만의 연합일 때 인정한다"고 결혼에 대한 정의에 뜻을 밝혔습니다.

정통 결혼 반대세력들: 그러나 지난 3년반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해 연방정부 헌법도 Prop.8 주 법안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2009년에 남녀만의 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DOMA 연방 헌법을 미국 법무부에 "DOMA 폐지/repeal"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2011년에는 DOMA는 "위헌"이라고까지 발표하며, 민주당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이 내놓은 RFMA(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혼을 존중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PROPOSITION 8: 오바마 대통령은 Prop.8 역시 불필요하며, 부당한 법안이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3명, 나중엔 4명의 판사들에 의해 이미 2008년에 통과된 Prop. 8 주 법안을 "위헌"이라며 판사들 맘대로 국민투표를 완전 무시한 것입니다. Prop.8을 "위헌"이라고 발표한 판사 중 한 명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가 미국

의 정치를 시작한 2008년 말부터 2012년까지 미국 역사상 지난 3년 반 동안 가장 많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우연일까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총 8개 주 중에서 매사추세츠(2004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주와 도시를 포함한 총 8개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각 주의 자유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주지사들에 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SB48: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K-12)교과서를 바꾸면서까지 동성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오로지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정상적으로만 가르치는 SB48 법안이 역시 자유주의인 민주당의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사인을 받아 2011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PRE(학부 교육 관리보호), CPR(부모가 미리 알 권리), Class Act(SB48 뒤집기) 같은 발의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 참으로 가치관의 전쟁 때입니다. 성경과 기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하여 학교에서 없어진 60년대 초부터 지난 50년은 사사기와 같은 시대, 노아시대와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한 대통령에 의하여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질되기 시작해 그 결과로 지금은 또 다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과 성경적 가치관에서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미국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그들의 미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33:12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생활 (사61:3-9) 찬394장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임되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일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본문은(8) 세 가지 신분의 변화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첫째, 여호와와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에게만 국한된 제사장 신분이 복음 안에서 보편화됐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과 자기를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화됐습

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림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사는 것입니다(9).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 성취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열방이 인정하는 그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이 복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중함시다.

화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 (시74:23-28) 찬507장

사람의 제임되는 목적을 보여주는 본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항상 주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의 생활과 같습니다(빌3:13-14).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즐기는 일입니다. 둘째, 주의 교훈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24).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교훈을 따르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교훈은 바로 성경이며 그날 읽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요15:7).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활입니다(25). 천지에 성도가 진정 사모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뿐이란 확신이 인생최대의 목표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 애정(affection)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참 은혜의 맛을 알게 됩니다.

수 창조의 하나님 (시19:1-6) 찬79장

인생의 중심과 목적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심을 시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창조의 목적은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창조하신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창조를 알며 즐거워 됩니다. 둘째, 소리없는 말씀으로 그의 다스림은 계속됐습니다(2-4). 창조하신 후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만물을 자신의 계획

대로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섬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연법칙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5-6). 하나님이 다스리다해서 자연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해달별의 운행이 자연법칙을 통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지식주의와 반과학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창조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 말씀과 성령의 구원 (사59:15-21) 찬190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이 풍성한 까닭은 그가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 공의를 세우십니다(17). 공의를 감웃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보복을 속웃으로, 열심을 겉웃으로 삼으셨기에 그의 구원은 완전합니다(렘6:13-18). 둘째, 급류의 강물처럼 열심으로 일하십니다(19). 또 그분의 구원은 급류처럼 신속하고 즉각적입니다. 그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약의 성취가 느린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성취되며 일정일확도 변함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21). 두 수단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으나 순간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것이 신자가 갈 길입니다.

금 생활의 절대 권위 (사8:19-22) 찬202장

이사야시대 유다백성의 타락은 믿음의 절대 권위가 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난 데서 비롯됐습니다. 첫째, 거짓 교훈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19). 유다의 근본 죄악, 외식은 바른 교훈을 대적하고 거짓 교훈의 교묘한 유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기에 거짓교훈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말의 표준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의 계시만이 모든 언행행사의 절대표준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결

국 무너지고 오직 그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밝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셋째, 말씀에 맞지 않는 교훈은 반드시 어두움을 맞습니다. 20절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선보는 절대성을 띤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에 착념치 못하면 그는 저절로 교만해 온갖 부패에 떨어집니다. 흑암이 광명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말씀의 권위를 믿음에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토 성경의 순결성 (시12:1-8) 찬200장

다윗의 시편 중 하나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잡게 하는 악인의 활동을 바라보고 탄식함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을 신뢰함으로 해결합니다.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순결합니다(6). 성경은 모든 사상과 언어 중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정결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으로 성경을 대하면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둘째, 평안을 안겨줍니다(5). 영적 혼란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 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양심으로 삼은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셋째, 영원합니다(7).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영원이란 말을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다 변해도 영원히 남는 성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흥기도, 집회의 초대, 집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영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전영예)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기쁨,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재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회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배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식(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기고 | 4.29 폭동 20주년

다함께 어울려 사는 다인종 사회를 위하여

-킹의 비폭력 인권운동을 통한 교훈-



배현찬 목사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및 다인종연교협력기구장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최대 수난이었던 4.29폭동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점점 다인종 다민족 사회화되는 시대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은 한인 이민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최근 LA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12년 4월28일 미주한국일보)는 앞으로의 인종갈등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인-히스패닉 갈등(39.8%), 흑인-히스패닉 갈등(29.5%), 한인-흑인 갈등(14.7%), 백인-흑인갈등(12%), 백인-히스패닉갈등(3.8%) 등으로 예측한다. 우리 미주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한-히스패닉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51.9%) 현재 위협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23.4%). 그리고 한-흑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46.4%)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34.7%) 평가하고 있다. 여러 다인종 사회 속에서 한인 이민사회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흑인 히스패닉과의 갈등 소지가 늘 존재한다는 인식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발전은 대체적으로 고난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4.29폭동의 고통을 지나면서 당시 이민사회(80만)가 현재의 규모(200만)로 증가했으며, 1.5세나 2세의 진출로 정치력이 신장되었음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한인 이민 디아스포라의 자기 정체성과 더불어 시민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인 전략적인 면에서는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인종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다함께 더불어 사는 다인종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타인종에 대한 성숙한 사회의식과 시민정신이 삶의 자체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백 년 동안의 인종 차별과 박해를 정의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승화시킨 킹 목사의 비폭력 인권운동의 정신과 적용은 우리들이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킹의 비폭력주의를 통한 사회변화 추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주 질서가 유지되며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인류역사가 인도되어진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가 비폭력적으로 사회정의 성취를 추구하는 이유는, 비폭력이라는 수단만이 서로의 마음 문을 열게 할 수 있으며, 부정의한 현상을 폭로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정의로운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킹은 비도덕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면에서 폭력을 강력히 거부했다. 폭력이란 사랑보다 증오가 앞서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며, 또 다른 폭력을 재발시키기 때문에 끊임없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죄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은 비폭력주의자라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탁상공론이나 이념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반드시 비폭력주의로 참가자들을 훈련시켰다. 훈련과정에서 킹은 비폭력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4단계의 실현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단계에서 부정의가 실제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고 명확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고, 둘째 단계로 부정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다음 셋째 단계에 가서 그 협상이 원만치 못하거나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 이번에는 요구하는 이쪽에서 자기주장을 스스로 정당화 할 수 있도록 더욱 순수화한 다음, 마지막 넷째 단계에 가서 집단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부정의를 행하던 상대방이 다시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더 발전적인 환경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킹의 비폭력 철학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기록한 그의 대표적 저서 "자유를 향한 행진"(Stride Toward Freedom)에서 여섯 가지의 원리로써 설명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하다.

첫째, 비폭력이란 상대를 두려워하는 비겁자의 방법이 아니다.

둘째, 비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해와 우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상대를 증오하거나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비폭력 저항이란 악의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지, 사람 그 자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비폭력 저항이란 복수심을 품지 않고도 상대방이 주는 고통을 순수히 감수하는 것이다.

다섯째, 비폭력 저항이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적 폭력까지도 배제한다.

여섯째, 비폭력 저항운동은 우주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킹의 비폭력주의 철학은 투쟁의 수단이나, 전략만이 아닌 정의 실현을 위한 삶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킹은 흑인들 스스로가 자기연민이나 놀린 자만의 비통함에서 오는 냉담한 반응과 침묵적인 수용과 좌절에서 먼저 해방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비폭력 정신이란 숙명적인 체면에서 오는 비탄이나 놀린 자의 억울한 한풀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애의 보편적 긍정성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다.

킹의 비폭력주의를 통한 인권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이다. 이것은 아가페의 정신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은 각자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선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할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신과 모든 타인을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킹이 주장하는 완전한 아가페의 삶이란 "자신을 향한 사랑의 깊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넓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높이"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랑의 정성각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완전한 삶의 차원의 빛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깊이에서 먼저 흑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사회 부정의에 대항할 때, 이웃을 위한 넓이의 사랑에서 비폭력의 수단으로 이웃을 대하기를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높은 사랑의 송고한 정신에서 백인과의 형제에 실현을 촉구하였다.

20년 전의 아픔과 상처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다. 이제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회구성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해야 할 때다. 미주 한인 이민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다인종 사회의 정의를 도모하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주변으로의 무관심으로 부터 벗어나 정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다인종 미국사회에서 필요한 민족일 뿐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진 지도력을 키워주도록 하자. 20년전 4.29폭동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어울려 사는 다인종 사회를 위하여!

5월은 가정의 달... 교회 모든 프로그램 문화적 코드 주제로

기독교교육단체, 5월 교육 주제로 소중한 가정 가꾸기 제시

가정은 교회의 구성요소,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의 온상이다. 따라서 교회는 5월에 집중된 어린이주일, 아버지주일, 부부주일, 청소년주일 등 가정목회에 필요한 주일을 매주 설정하고 각각 그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정이 신성한 사랑과 믿음의 생터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자.

5월이 되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유익한 행사를 진행한다. 즉 교인들이 기쁨 넘치는 축제의 절기와 행복이 가득한 잔치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 찾아오면 목회자들은 걱정부터 앞서는 현실이다. 물론 가정사역에 대한 노후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예외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할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가정의 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은 설교다. 가정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제한된 본문에 예화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대로 설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이혼에 대한 책망도 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에 대해서도 부모 거역에 대한 경고 등 성경에서 거역하고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하지만 최근 교회 내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재혼가정 등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가정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설교를 잘못하면 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설교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설사 가정의 달에 강단에서 가정을 주제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주일과 아버지주일 두 차례 정도 설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단의 현실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패러디'와 같은 기독교교육 전문지에서는 "강단에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한 교회 내 가정은 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는 복음의 핵심적 주제로서 가정을 위한 설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가정 이



야기로 채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설교가 올바로 행해지지 못한 이유는 교회성장과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는 목회적 이유와 목회자 자신의 생활이 견고치 못한 데서 오는 자신감의 결여, 성경에 대한 목회자의 편견과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또한 목회자들은 가정설교에 대한 중요성 이외에도 ▲치유와 회복의 담론을 지속할 것 ▲예배 참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한 부모, 과부, 소년소녀 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배려할 것 ▲지나치게 건강한 가정 중심이었던 이쯤지 말 것 ▲전문 사역기관의 도움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것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가정의 달에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고갈돼 가정사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을, 교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사역 전문가를 초청해 '부부스쿨', '남편 사랑교실', '행복만들기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교인의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문화 및 가족 가치 만들기, 가족 친밀감 높이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 '가족 칭찬의 날 정하기', '가족사

명 선언서 만들기', '가족에게 파이팅 편지 보내기', '자녀 포옹하기', '가족들의 소중한 보물 숨기기', '결혼생활 목표 만들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자녀 집안인 거들게 하기', '가족과 여행하기', '가족과 사진 찍기', '가족 별칭 짓기', '역할 바꾸기 게임' 등 소박하지만 교인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으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손수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요소,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사랑의 영적 공동체이다. 가정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 아버지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치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바로 가정이다. 따라서 5월에는 소중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 보자.

www.shemaiqeq.org
총판: 소망사 (02) 392-4232

가정교육·교회교육·교회성장 위기의 대안

현용수의 인성교육 + 쉐마교육에서 찾으세요!

이구동성!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분들의 증언!



미국 Biola 대학 Talbot 신학대학원(Ph.D.)
- 쉐마목회자클리닉 주관
- 유아교육학회 회장
- 쉐마교육연구원 원장

LA 지역 쉐마목회자클리닉

일시	2012년 6월 11일(월) - 15일(금) 매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11시
장소	로렘장로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714-956-7640 (교회 사무실)
대상	목회자 교수 선교사 신학생 교육담당 평신도 지도자 (참조: 부부가 함께 들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등록비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200 (부부 \$300) 선교사와 신학생 \$150, 중·고·대학생 \$100 *5월 25일 이전 등록자는 \$20 할인됨
숙식비	각자 부담 (저렴한 숙박시설 안내함: 주침 측 문의 요함) 타주에서 오시는 분은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 바랍니다
문의	773-600-1800 (송원 목사) / 714-818-0512 (남후수 교수) www.shemaiqeq.org 참조
특징	제쳐 화기는 미국 유대인 신학자 후원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세미나(Shema Teacher's Certification)를 수여

강사 현용수 박사의 IQ·EQ 유대인 자녀교육 시리즈 (28권)

